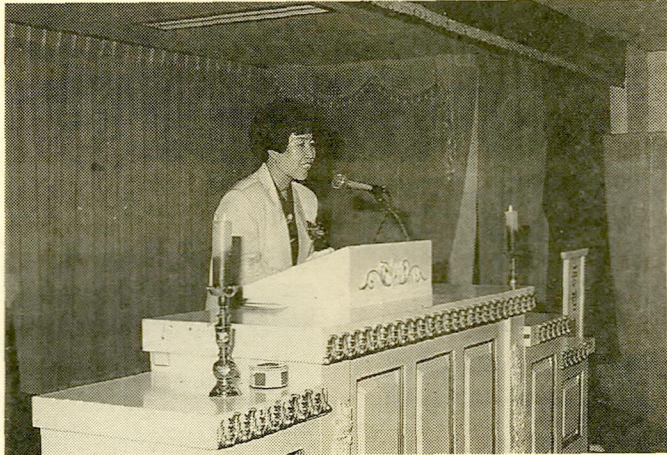


생활에서 우려난 진솔한 주례사, 감동 더 커

“예식이 시작되면 신랑 부모와 신부의 부모가 순서대로 입장한다. 다음에 신랑과 화려한 색의 의상을 입은 신부가 입장한다. 한복과 두루마기 위에 색동스톨(목사 가운위에 걸치는 장식)을 두른 주례자의 주례가 끝나고 나면 신랑 신부는 손을 맞잡고 나란히 퇴장한다. 폐백은 신랑측과 신부측의 가족이 함께 모여 올린다. 윗 어른들에게 드리는 폐백이 끝나면 양가의 형제자매들에게도 인사를 하고 마지막에는 주례에게 감사의 인사를 한다.”

30년이 넘게 젊은부부의 탄생에 동참하고 있는 조화순(60. 경기도 시흥시 월곶 ‘달월교회’) 목사가 이끄는 결혼식 모습이다. 조 목사는 ‘달월교회’의 교인들 외에 조 목사의 결혼식 형식을 좋아하는 사람들



▲광주 YWCA의 김경천 총무가 주례사를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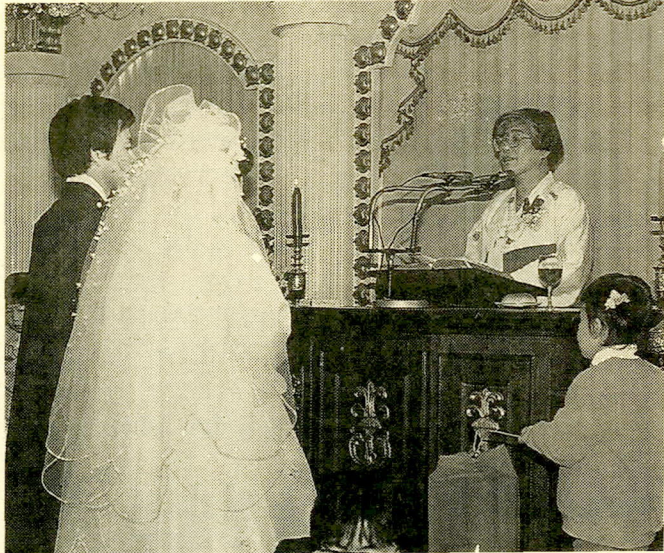
의 요청에 의해 지금까지 했던 주례의 수는 셀 수 없을 정도다.

‘주례=남성’이라는 고정관념 버릴 때

“달나라도 가는 세상에 살면

목사의 말은 모든 여성주례자들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된다.

두번의 주례경험을 쌓고 앞으로 계속 여성주례자의 길을 가려고 마음먹은 광주 YWCA의 김경천(52. 광주가정법률상담소장, 유치원원장) 총무는 지난해 11월 장애인 부부의 주례를 의뢰받았을 때만 해도 두려움이 컸었다. “주례를 의뢰 받은 것 자체도 부담스러웠지만 신랑, 신부가 둘다 장애자 였기 때문에 자칫 마음에 상처를



▲조화순 목사가 이끄는 결혼식 장면.

서 아직도 여자 주례자들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히려 그들이 시대변화를 따르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30살의 젊은 나이에 처음 주례석에 섰을 때부터 지금까지 주례자가 입장 한 후에 얼마간의 숙덕임이 있는 것은 변함이 없지만 주례사가 끝난 후 ‘여성이 하니까 정말 좋다’는 칭찬을 빠짐 없이 들었다는 조화순

주는 말을 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컸어요.”

김경천 총무는 신랑과 신부에게 어렵고 힘든 과거를 딛고 희망찬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격려의 말을 해주는 것은 물론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하객들에게도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서로의 몫을 조금씩 나누어 짊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눈을 가지

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눈으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는 성경말씀과 함께.

여성주례자가 생소하다는 것이 통념이지만 실은 소수교파를 제외하면 약 2백여명의 기독교장로회와 감리교 소속 여성목사들이 목회활동을 하고 있고 이들의 대부분이 주례를 서고 있다. 그리고 이태영 가정법률상담소장, 조아라 광주YWCA 명예회장 등 생각보다 많은 여성주례자들이 결혼식을 이끌

어 왔다.

잠실중앙교회의 박선자(57) 목사는 “유명한 사람들이 하루에도 몇번씩 결혼식에 가서 똑같은 말을 되풀이 하는 성의 없는 주례보다는 여성들이 삶에서 우러나오는 진솔한 한마디를 해주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결혼식 주례를 서 보면 하객들이 여성주례자가 나왔다고 긴장을 하면서 경청을 하는모습을 자주 대합니다.”라고 전한다. <황금희 기자>

여성신문 만평

반쪽이



349